

“불교계 죽음 교육 프로그램 개발 나서야”

문현공 씨, <불교평론>에 기고 - 초기경전을 중심으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자살률 등 지표에서 드러나듯 삶의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죽음준비 교육’을 통해 대중들의 삶 자세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美뉴욕주립대 한국학센터 연구원을 역임한 문현공 동국대 박사과정(사진)은 최근 <불교평론> 57집에 실린 ‘죽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서 한국에서의 죽음준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씨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죽음연구가 시작됐으며 유럽 또한 죽음교육이 시행 중이다. 일본 역시 1970년대부터 서양의 죽음연구를 받아들여 2005년 이후부터 정부차원에서 청소년 범죄와 자살률 증가의 대안으로 죽음교육

을 시행해 효과를 보고 있다.

문 씨는 “국내에서도 불교계의 생사학을 포함한 죽음연구가 종종 이뤄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수준에서 가야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불교계를 돌아봐도 직접적인 죽음준비를 제시하는 사찰의 프로그램이나 불교계 연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씨는 논문에서 초기불교경전을 중심으로 불교적 입장에서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문 씨는 “불교 입장에서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구하는 것도 수행”이라며 “초기 경전에서는 시체가 부패하며 해골이 되는 과정을 관찰하며 탐욕을 다스리는 부정관(不淨觀) 수행,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인 사념(死念) 수행



자살 막기 위한 교육 필요성 강조

“자살 죽음 프로그램 드물어”

죽음 돌보기·바라보기도 수행

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 중 문 씨는 사념 수행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사념 수행은 하루·한나절·한 끼음식을 먹는 동안·숨을 내쉬고 들이쉬

는 동안 등 작은 순간을 살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에 정신을 기울이면 많은 것을 이룬 것이라든가 6가지 가르침이다.

문 씨는 사념수행과 함께 아픈 이들을 보살피는 호스피스 활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문 씨는 “상담을 통해 죽어가는 사람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심리치료 방법이 필요하다”며 “부처님은 아슬아슬의 존자가 증병에 들자 마음의 해탈을 얻게 해 평안한 죽음을 이르게 했다. 이처럼 증중환자의 심리치료를 비롯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방법을 불교계가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씨는 끝으로 “불교계의 체계적인 죽음준비 프로그램 개설과 함께 법회 또는 템플스테이와 같은 기존 프로그램의 틀 위에 죽음명상과 같은 죽음준비 프로그램을 추가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방향을 제시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0·27 법난 사업 탄력 불나

법난위원장 정만 스님 기자회견… “사업 정비 단행”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정만, 이하 10·27법난위)의 명예 회복 등 목적 사업이 탄력이 불을 전 망이다.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정만스님(사진)은 3월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목표를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토대 구축’으로 설정하고 △적극적 피해 조사 및 처리 △기법관 건립사업 본격 추진 △명예회복방안 마련 등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정만 스님은 우선 피해 신청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법난 당시 승적 보유자 3232명에 대해 설문조사서를 발송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 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소극적 자세로 답신 회신율이 미미하다는 것이 위원회 측의 설명. 정만 스님은 피해 접수가 적극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해 “직접 피해를 입은 스님들은 입적하셨거나 생존해있다 하더라도 피해신청을 저어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난 이후 30여년이나 지났고, 종교인이라는 특수성은 (이러한 갈등상황에 대한) 적극 관여를 꺼리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피해신청 건수는 186건으로 그 중 완료건수는 157건이다. 의료지원금에 대해서는 31명에 대해 5억여원이 지급됐지만, 명예회복방안을 둘러싸고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10·27법난 위원회는 10·27 법난 피해자와 불교계 명예회복을 위한 기법관 건립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관건은 건립부지 확정과 계획안 마련이다. 정만 스님은 정부부처를 방문한 결과 “국비지원금으로 기법관 매입부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남은 것은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다. 종단과 협조해 기본계획을 5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광부로 소관 변경되며

기한 2015년 6월로 늘어

종단과 협의해 기법관 건립

조계사 성역화 사업과 연계

1000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한 기법관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종단과 협의해 조계사 성역화 사업에 포함시킬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만 스님은 “기법관 건립은 역사 교육적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며 “졸속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사업계획을 탄탄히 세우려는 총무원장 스님의 당부가 있었던 만큼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차근차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10·27 법난위원회는 지난해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무부처가 국방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되면서 인력구성에도 변화가 생긴 바 있다. 기존에 있던 군인10명이 모두 철수하게 되면서 민간 전문인력과 부처 파견 공무원 등으로 변화된 것이다. 활동기한도 2015년 6월로 연장됐다.

정만 스님은 “그동안 법난 특별법 시행 연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안다”며 “이번이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 생각하고 예정 사업에 전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단은 3월 3일 서귀포 법정사지에서 출발식을 갖고 대장정의 시작을 알렸다. 사진은 법정사지를 출발한 순례단이 도보순례를 하고 있는 모습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 ‘START’

3일, 제주 법정사지에서 출발식… 100일 장정 돌입

불교의 화쟁사상과 3.1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갈등과 반목 해결을 발원하는 100일 간의 국토순례가 시작됐다.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단은 3월 3일 서귀포 법정사지에서 출발식을 갖고 대장정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포교부장 송묵 스님이 대독한 처사를 통해 “2500년 전 붓 사상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걸어가셨던 길을 이제 그 제자들이 따라가고 있으니 환희심 가득한 심성의 불사가 아닐 수 없다”고 격려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3·1운동의 정신과 함께하는 화쟁코리아 순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거대한 물결”이라며 “오늘 우리가 함께한 한 걸음 한 걸음이 공정과 상생의 길

을 제시하는 희망의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출발식에는 제주 관음사 주지 성효, 약천사 주지 성원,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과 이기홍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장, 신경선 한국대 한불교연합회장 양병식 서귀포시장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출발식 이후 순례단은 제주도의 갈등 현장을 순례하며 3월 9일 강정마을을 끝으로 제주 순례를 마무리한다. 3월 10일부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충북, 대전·충남, 강원, 경기남부, 인천, 경기북부를 차례로 순례하며 6월10일 서울 광화문공원에서 100일 간의 대장정을 회향할 예정이다.

신종일 기자 molp79@hyunbul.com

“학술원 문제 ‘시스템 미비’서 비롯”

동국대 불교대학발전위 5일 회의… 현안 수습 논의

불교계 인사 참여 운영위 구성

동국대 불교대학발전위원회가 불교학술원 내용 문제를 운영체계 미비에서 비롯된 문제로 결론 짓고, 사태 수습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불교대학발전위원회(위원장 영담)는 3월 5일 동국대 본관 교무회의실에서 제26차 회의를 열고 최근 불거진 불교학술원 내용에 대한 수습을 논의했다.

불교대학발전위원회는 회의에서 불교학술원 인사와 행정 등에 내규를 마련하는 등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장 영담 스님은 먼저 “이번 사태로 학교가 피해를 입게 됐다. 서로 사태를 확대시키지 말고 감사에서 지적인 사항은 처리하고, 수습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불교대학발전위원들은 이종수 팀장 등이 사업단장인 불교학술원장을 대신해 고한 ABC사업단 기획운영위원회에 대한 재정비를 권고했다. 그동안 기획운영위원회 구성이 김종욱 불교문화연구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실무팀장들로 구성된 임의기구인 만큼, 인사 및 행정 절차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문명대 위원(동국대 명예교수)은 “기획운영위원회 구성을 보면 실무팀장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사업을 진행하는 이와 결제하는 이가 같다는 것은 맞지 않다. 불

교대학 교수들을 비롯한 여러 인사를 운영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이런 운영위에서 방침을 정하고 교원 채용 때에는 인사위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운영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욱 불교문화연구원장은 “그동안 기획운영위원회는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실무진의 총괄회의 차원이었다. 운영위원회가 꾸려져야 한다는 것을 빼놓은 지적으로 받아들인다”며 “동국대 여러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상위의 판단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앞서서는 지난 2013년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동국대 법인의 불교학술원 감사결과가 공개됐다. 감사에서는 사업단 연구원 채용, 출판 수익계약 및 출판대금 정산 미비, 출장비 미지급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감사결과를 보고한 김지형 법인사무처 기획관리부장은 “감사 결과 투명한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이번 사태로 인한 예산 미집행으로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점을 미뤄 조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영담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호계종 회장 일민 스님, 불교학술원장 현각 스님, 학담 스님,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석했으며 법인사무처와 동국대 불교대학, 경주 캠퍼스 불교문화대학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불교문화단체 등록사업 시행

4월 9일까지 접수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혜일)는 2014년도 불교문화단체 등록사업을 시행한다.

불교문화단체 등록사업은 불교사상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생활과 의례, 문학, 음악, 미술, 건축, 무용, 음식, 문화콘텐츠를 범주로 활동하는 단체들을 종단에 등록하게 하고 ‘불교문화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다.

종단 등록단체들은 조계종명 사용, 종

단과의 공동사업 추진, 종단 지원 신청 및 협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사업은 10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되며 서류심사와 심의를 거쳐 등록이 완료된다. 단, 법인 및 단체(비영리 단체 포함)의 경우 창단 또는 개관한 날부터 2년 이상 되어야 한다. 매년 1편 이상의 정기공연 및 전시출품(창작활동)의 실적도 있어야 한다. 등록 및 신청서는 종단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02)2011-1779

노덕현 기자

선가귀감 禪家龜鑑

유정 지음
정우로보 감림

불교수행의 입문서, 깨달음을 향한 필독서!

선가귀감 禪家龜鑑

서산대사의 《선가귀감》, 東巖 正愚 스님의 언어로 다시 듣는다

《선가귀감禪家龜鑑》은 서산대사 청허당 휴정 선사(1564년) 금강산 백화암에서 찬술한 책이다. 수행을 하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던 당시 시대상황에서, 수행자들이 어떻게 불교공부를 체계적으로 시작하고 수행할 것인지 안내하기 위해 편찬되었다. 정우 스님은 은사이신 철우 태주 선사가 평생 지니고 공부하던 1,600년경 목판본 《선가귀감》을 저본으로 오래전의 가르침을 지금의 언어로 새롭게 풀어 강설했다.

휴정 지음 | 정우 감설 | 284쪽 | 2014년 1월 25일 출간 | 값 18,000원

동암 東巖 정우 正愚 스님은 평생 참선수행에 전념하며 법향法香을 전한 철우 태주 鐵牛 太柱, 1895~1979) 선사를 은사로 1960년에 출가하여 법을 이었다. 당대 대강백이신 강고봉, 호경, 혼해 강백으로부터 사집과四集科,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 대교과대敎科를 마쳤다. 이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수료하고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교무국장, 포교국장을 거쳐 조계종 중앙총회 11대, 12대 총회위원을 역임했다. 범어사, 불국사, 봉암사, 해인사, 송광사, 오대산 상원사, 지리산 칠불, 청암사 수도암, 덕숭총림 정혜사, 도봉산 망월사, 영축총림 통도사, 곡성 태안사, 백양사 등지에서 참선수행했다. 지금은 구미 금강사金剛寺 주지소임을 맡으면서 다양한 포교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전국의 제방선원에서 참선수행으로 안거정진을 이어가고 있다.

조계종 출판사

(주) 조계종출판사 문의_02)720-6107~9 www.jogyebook.com 구입문의_ 불교전문서점 02)2031-2070~3 www.jbbook.co.kr

도서보급_ 조계종출판사 서적출판사업부 02)998-5847